논어 8편 태백 5장 · 원문·풀이

曾子曰：「以能問於不能，以多問於寡，有若無，實若虛，犯而不校。昔者吾友，嘗從事於斯矣。」

독음 · 증자왈 이능문어불능 이다문어과 유약무 실약허 범이불교 석자오우 상종사어사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능력이 있어도 부족한 이에게 묻고, 많이 알아도 적게 아는 이에게 묻고, 충실해도 빈 듯하며, 해를 입어도 다투지 않는 벗을 회고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曾 일찍 증 증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以 써 이 이

能 능할 능 능 / 問 물을 문 문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不 아닐 불

多 많을 다 다 / 寡 적을 과 과 / 有 있을 유 / 若 같을 약 약

無 없을 무 무 / 實 열매 실 실 / 虛 빌 허 허 / 犯 범할 범

而 말이을 이 / 校 학교 교 교 / 昔 옛 석 석 / 者 놈 자

吾 자기 오 오 / 友 벗 우 우 / 嘗 맛볼 상 상 / 從 좇을 종 종

事 일 사 사 / 斯 이 사 사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